

동남권 수출과 지역경제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의 변화를 중심으로 -

백충기 연구위원(cgbaek@bnkfg.com)

동남권은 2007년 전국 수출중 약 30%를 차지하며 수도권과 함께 국내 최대 수출 권역으로서의 위상을 보유했다. 하지만 2017년에는 24.6%까지 비중이 낮아 지면서 수도권과의 격차가 확대되는 등 동남권의 수출위상이 최근 10년간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 수출국이었던 중국에 대한 수출이 전국과 달리 크게 감소한 가운데 수입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베트남 등 신흥시장으로의 공략도 부진하였다. 이와함께 선박 해양구조물및부품, 자동차, 석유제품 등 중후장대형 품목중심의 수출 편중현상도 좀처럼 완화되지 못하고 있다.

지금은 동남권이 지난 10년의 저성장에서 벗어나 미래 10년의 성장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방안 마련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무엇보다 상호 연관관계가 높은 주력 산업의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해 부산, 울산, 경남 지자체간 협력방안이 포함된 2030 동남권 수출로드맵 수립 등 수출활성화에 우선순위를 둔 정책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 동남권 수출 위상 급락

동남권의 전국대비 수출 비중은 금액기준으로 2007년 29.8%에 달하며 국내 최대 수출권역인 수도권(30.3%)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하지만 2017년에는 24.6%까지 비중이 낮아지면서 수도권과의 격차가 확대되는 등 동남권 수출위상이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의 기간 동안 경제권역별 수출비중 축소 폭은 동남권($\Delta 5.2\text{p}$)이 가장 컸으며 다음으로는 대경권($\Delta 4.2\text{p}$), 호남권($\Delta 1.2\text{p}$) 순이었다.

한편 수출물량에서는 동남권만 전국에서 유일하게 비중이 낮아진 경제권역으로 나타났다. 2017년 수출물량 비중은 2007년과 비교하면 10%p 가까운 급락세(43.4%→33.8%)를 보였다. 동남권은 단가변동의 영향을 받는 수출금액 기준뿐만 아니라 수출물량 기준 비중도 동시에 하락하고 있어 타 권역에 비해 수출 활력이 크게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경제권역별 전국대비 수출비중 변화

(%, %p)

구 분	수출금액 기준			수출물량 기준		
	2007년 (A)	2017년 (B)	GAP (B-A)	2007년 (A)	2017년 (B)	GAP (B-A)
동남권	29.8	24.6	$\Delta 5.2$	43.4	33.8	$\Delta 9.6$
수도권	30.3	38.5	8.2	15.0	22.4	7.4
충청권	16.0	18.4	2.4	9.0	11.8	2.8
호남권	10.4	9.1	$\Delta 1.2$	20.9	21.1	0.1
대경권	13.3	9.1	$\Delta 4.2$	7.0	9.1	2.1

자료 : 한국무역협회

지역별로는 부산의 경우 수출금액 및 수출물량 비중이 모두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금액의 전국 순위도 2007년 9위에서 2017년에는 10위로 한 단계 하락하였다.

울산은 수출금액 기준 5.6%p, 수출물량 기준 8.2%p 비중이 낮아지면서 최근 10년 중 동남권에서 하락 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울산은 수출금액 기준으로 2007년 전국 2위에서 2017년에는 경기, 충남에 이은 3위 지역으로 밀려났다.

경남지역도 수출물량 기준으로는 부산, 울산과 마찬가지로 비중이 축소되며 순위가 전국 5위에서 7위로 하락하였다. 하지만 수출금액 비중과 순위는 해양플랜트 물량의 집중인도 등 일시적 요인에 따라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부산, 울산, 경남 수출비중 변화¹⁾

(%, %p)

구 분	수출금액 기준 ²⁾			수출물량 기준 ³⁾		
	2007년 (A)	2017년 (B)	GAP (B-A)	2007년 (A)	2017년 (B)	GAP (B-A)
부산	2.7 (9위)	2.6 (10위)	△0.1	2.5 (9위)	2.1 (9위)	△0.4
울산	17.2 (2위)	11.6 (3위)	△5.6	34.7 (1위)	26.5 (1위)	△8.2
경남	9.8 (5위)	10.4 (4위)	0.6	6.1 (5위)	5.1 (7위)	△1.0

주 : 1) ()내는 전국대비 순위

2) 수출금액 비중 상위 5대 지역

- 2007년 : 경기(17.4%), 울산(17.2%), 충남(12.9%), 경북(12.2%), 경남(9.8%)
- 2017년 : 경기(21.6%), 충남(13.9%), 울산(11.6%), 경남(10.4%), 서울(10.0%)

3) 수출물량 비중 상위 5대 지역

- 2007년 : 울산(34.7%), 전남(18.4%), 충남(7.6%), 경북(6.5%), 경남(6.1%)
- 2017년 : 울산(26.5%), 전남(19.1%), 충남(10.4%), 서울(10.0%), 경북(8.5%)

자료 : 한국무역협회

최대 수요처였던 중국으로의 수출 급감, 신흥시장 공략도 미진

중국은 2007년 기준으로 동남권 수출중 14.8%를 차지하는 최대 수출대상국이 었다¹⁾. 하지만 2015년 이후 2위 수출대상국으로 밀려났으며 2017년에는 동남권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1.6%까지 낮아졌다. 최근 10년간 대중국 수출 비중이 25% 내외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전국과는 대조적인 양상을 보인 것이다²⁾.

신흥시장에 대한 공략도 전국에 비해 성과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전국 3대 수출대상국으로 부상한 베트남의 경우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연평균 10%를 넘는 수입수요 증가율을 시현하고 있다. 이와같은 상황에서 전국은 2007~17년중 베트남에 대한 수출 증가율이 연평균 23.6%를 기록하는 등 베트남시장 공략에 성공하였으나 동남권의 베트남 수출 증가율은 전국의 절반수준을 밑도는 11.3%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남권 수출대상국 변화¹⁾²⁾³⁾

구분	동남권		전국	
	2007년	2017년	2007년	2017년
1위	중국 (14.8)	미국 (14.9)	중국 (22.1)	중국 (24.8)
2위	미국 (11.0)	중국 (11.6)	미국 (12.3)	미국 (12.0)
3위	일본 (6.5)	일본 (5.5)	일본 (7.1)	베트남 (8.3)
4위	싱가포르 (4.2)	베트남 (4.2)	홍콩 (5.0)	홍콩 (6.8)
5위	독일 (3.7)	영국 (3.8)	대만 (3.5)	일본 (4.7)
6위	홍콩 (3.5)	노르웨이 (3.5)	싱가포르 (3.2)	호주 (3.5)
7위	러시아 (2.8)	싱가포르 (3.5)	독일 (3.1)	인도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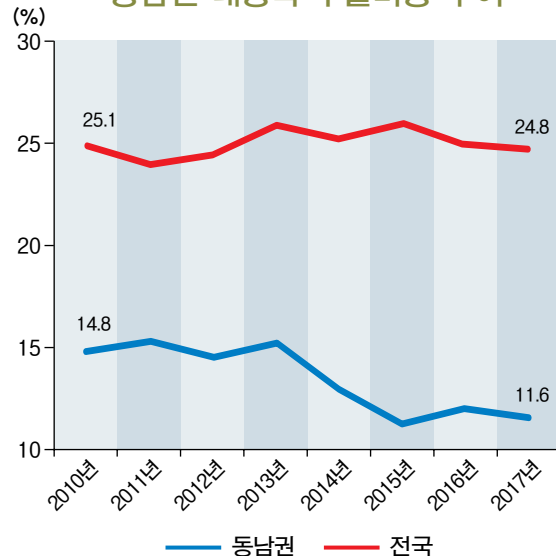
주 : 1) 편의치적국 제외

2) 동남권 순위중 호주는 일시적 요인이므로 제외

3) 수출금액 기준

자료 : 한국무역협회

동남권 대중국 수출비중 추이



주 : 수출금액 기준

자료 : 한국무역협회

1) 중국은 2004년부터 2014년까지 11년간 동남권 수출의 15% 내외를 차지하는 최대 수출대상국

2) 2007~17년중 동남권의 중국에 대한 수출은 연평균 7% 감소한 반면 전국은 5% 증가

지역별로 보면 부산은 중국이 2007년 최대 수출대상국이었으나 2017년에는 미국이 1위로 부상하였다. 부산의 대미국 수출 비중은 2007년 10%를 차지하는데 그쳤으나 2017년에는 22.7%로 상승하였고 대중국 수출비중은 큰 폭으로 하락(14.6% → 9.8%)하였다.

울산도 같은기간 대중국 수출비중이 17.3%에서 13.3%로 하락하면서 최대 수출대상국은 미국으로 변경되었다. 경남지역 역시 2007년에 비해 2017년 중국으로의 수출 비중이 하락(10.3% → 9.0%)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신흥시장에 대한 성과는 지역별로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부산의 경우 베트남에 대한 수출비중은 같은기간 3.9%에서 8.1%로 늘어나고 멕시코도 자동차부품 등의 수출호조에 힘입어 5대 수출대상국으로 새롭게 포함³⁾되는 등 울산, 경남과는 차별적인 실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울산, 경남 수출대상국 변화^{1) 2) 3)}

(%)

구 분	부산		울산		경남	
	2007년	2017년	2007년	2017년	2007년	2017년
1위	중국 (14.6)	미국 (22.7)	중국 (17.3)	미국 (14.0)	미국 (10.5)	미국 (12.5)
2위	일본 (11.3)	중국 (9.8)	미국 (11.5)	중국 (13.3)	중국 (10.3)	중국 (9.0)
3위	미국 (10.0)	일본 (9.0)	일본 (6.7)	일본 (5.2)	싱가포르 (5.3)	영국 (7.4)
4위	싱가포르 (5.4)	베트남 (8.1)	싱가포르 (3.4)	싱가포르 (5.1)	독일 (5.1)	일본 (4.3)
5위	베트남 (3.9)	멕시코 (3.8)	인도네시아 (3.0)	호주 (5.1)	일본 (4.7)	나이지리아 (3.5)
6위	영국 (3.3)	아랍에미리트연합 (3.1)	독일 (3.0)	노르웨이 (4.4)	홍콩 (4.0)	베트남 (3.2)
7위	러시아 (2.9)	인도네시아 (2.9)	러시아 (2.9)	베트남 (3.4)	나이지리아 (3.3)	노르웨이 (3.0)

주 : 1) 편의치적국 제외

2) 2017년 경남의 경우 호주에 대한 수출이 1위였으나 해양플랜트 물량 집중인도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점에서 제외

3) 수출금액 기준

자료 : 한국무역협회

3) 2007년 기준 부산의 멕시코에 대한 수출품목중 자동차부품은 약 3%에 비중을 차지하는데 그쳤으나 2015년 이후 13% 내외의 비중까지 늘어나며 철강판에 이은 대멕시코 2대 수출품목으로 부상

수출품목 집중현상 심화

지난 10년간 동남권은 중후장대형 품목중심의 수출구조에서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 수출비중을 살펴보면 선박해양구조물및부품, 자동차, 석유제품 등 3대 품목의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어서면서 특정품목 편중 현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국의 경우도 반도체를 중심으로 주력 수출품목이 크게 변화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⁴⁾. 다만 2007년과 2017년 모두 수출 상위 3대 품목의 비중이 30% 내외에 불과한 수준이라는 점에서 동남권의 수출품목 집중현상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동남권 수출품목 변화

(%)

구 분	동남권		전 국	
	2007년	2017년	2007년	2017년
1위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 (23.5)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 (27.3)	반도체 (10.5)	반도체 (17.1)
2위	석유제품 (14.3)	자동차 (12.7)	자동차 (10.0)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 (7.4)
3위	자동차 (13.1)	석유제품 (11.8)	무선통신기기 (8.2)	자동차 (7.3)
4위	합성수지 (3.9)	자동차부품 (4.8)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 (7.5)	석유제품 (6.1)
5위	자동차부품 (3.8)	레일및철구조물 (2.9)	석유제품 (6.5)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4.8)
6위	무선통신기기 (2.7)	합성수지 (2.3)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4.7)	자동차부품 (4.0)
7위	건설광산기계 (2.6)	원동기및펌프 (2.2)	컴퓨터 (3.7)	무선통신기기 (3.9)

주 : 수출금액 기준
자료 : 한국무역협회

4) 전국의 2007년 3위 수출품목이었던 무선통신기기는 수출이 크게 감소하며 2017년에는 7위 수출품목으로 순위가 하락

지역별로 보면 부산은 2007년 선박해양구조물및부품이 최대 수출품목이었으나 2017년에는 자동차가 1위 품목으로 올라섰다. 자동차 수출비중은 2007년 6.2%에 불과했으나 닛산로그 수출, 한미 FTA 발효 등의 효과에 힘입어 2017년 19.3%로 크게 높아졌으며 자동차부품도 4위 수출품목으로 성장하였다.

울산의 경우 지난 10년간 수출품목 변화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과 2017년 모두 석유제품, 자동차, 선박해양구조물및부품이 상위 3대 수출품목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들 품목이 울산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5~65% 수준에 달하고 있다.

경남은 2017년 상위 3대 수출품목이 선박해양구조물및부품, 자동차부품, 원동기및펌프로 나타났다. 2007년 2위였던 무선통신기기⁵⁾가 30위, 3위였던 건설광산기계가 6위로 밀려난데 반해 자동차부품과 원동기및부품이 3대 주력 수출품목으로 자리매김 하였다.

부산, 울산, 경남 수출품목 변화

(%)

구 분	부산		울산		경남	
	2007년	2017년	2007년	2017년	2007년	2017년
1위	선박해양구조물 및부품 (19.5)	자동차 (19.3)	석유제품 (26.4)	석유제품 (24.9)	선박해양구조물 및부품 (38.6)	선박해양구조물 및부품 (52.4)
2위	주단조품 (8.4)	철강판 (7.0)	자동차 (20.5)	자동차 (21.5)	무선통신기기 (8.1)	자동차부품 (5.0)
3위	철강판 (7.0)	철강관 및 철강선 (5.8)	선박해양구조물 및부품 (15.6)	선박해양구조물 및부품 (10.2)	건설광산기계 (4.4)	원동기및펌프 (3.3)
4위	자동차 (6.2)	자동차부품 (4.3)	합성수지 (6.4)	레이및철구조물 (5.4)	가정용회전기 (3.7)	항공기및부품 (2.9)
5위	철강관 및 철강선 (4.6)	선박해양구조물 및부품 (4.2)	자동차부품 (4.4)	자동차부품 (4.7)	자동차부품 (3.0)	공기조절기및 냉난방기 (2.7)
6위	기계요소 (3.0)	원동기및펌프 (4.1)	석유화학합성 원료 (2.7)	합성수지 (4.3)	공기조절기및 냉난방기 (2.5)	건설광산기계 (2.6)
7위	신변잡화 (2.8)	주단조품 (4.0)	기초유분 (2.5)	동제품 (3.0)	자동차 (2.2)	고무제품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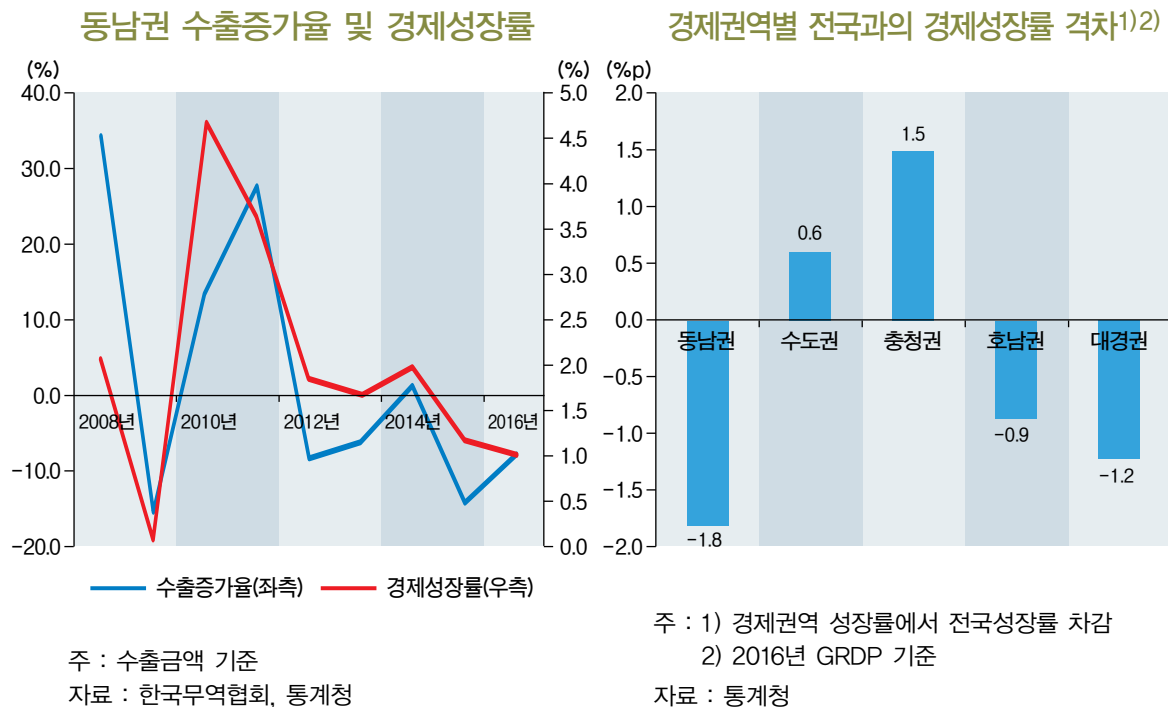
주 : 수출금액 기준
자료 : 한국무역협회

5) 무선통신기기는 2007~10년까지 경남 2위 수출품목이었으나 이후 2011년 3위, 2012년 6위, 2013년 15위, 2014년 20위, 2015~2016년 27위, 2017년 30위로 단계적으로 순위 하락(수출금액 기준). 이는 2014년 노키아티엠씨 공장이 창원에서 철수한 데 상당부분 기인

지역경제 미래 10년, 2030 동남권 수출 로드맵 마련으로 선제적 대응해야

2007~17년중 동남권 경제 성장률은 연평균 1.8%로 전국 경제 성장률(3.3%)에 크게 못 미치는 모습이다. 특히 동남권의 전국대비 경제성장률 격차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2016년에는 1.8%p에 달했는데 이는 경제권역중 전국 성장률과 가장 큰 차이를 보인 것이다⁶⁾.

같은기간 동남권 수출 증가율도 연평균 2.5%로 전국(4.4%)의 절반을 약간 넘는 수준에 그쳤다. 동남권 수출증가율과 지역경제 성장률이 지난 10년간 유사한 패턴을 보인다는 점에서 수출감소가 지역경제 부진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6) 대경권(-1.2%p)과 호남권(-0.9%p)도 전국 성장세를 하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수도권(0.6%p)과 충청권(1.5%p)을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높은 성장세 시현

수출부문(순수출 기준)의 동남권 경제 성장 기여도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2001~07년중) 0.7%p에서 2008~16년중 0.1%p로 크게 하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2010~15년중에는 성장 기여도가 마이너스 수준을 보여 지역경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내수부문을 분해할 경우 같은기간 소비의 성장기여도 하락 폭(1.8%p → 1.4%p)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으나 투자 부문(1.8%p → 0.4%p) 둔화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지역의 내수시장 규모가 작은 점을 고려할 때 수출 부진으로 인해 지역기업들의 투자여력이 크게 낮아졌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동남권 수출 부진이 투자 부문뿐만 아니라 소비부문을 더욱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아 우려된다.

지금은 동남권이 지난 10년의 저성장에서 벗어나 미래 10년의 성장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방안 마련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중국에 대한 수출 회복, 신흥시장 맞춤형 수출 전략 강화, 특정품목 편중현상 완화 방안 도출 등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상호 연관관계가 높은 주력산업의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해 부산, 울산, 경남 지자체간 협력방안이 포함된 2030 동남권 수출 로드맵 수립 등 수출활성화에 우선순위를 둔 정책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내수 및 수출의 동남권 경제성장 기여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2001~07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2008~16년)〉		
연평균 경제성장률 : 4.5%			연평균 경제성장률 : 2.0%		
내수		순수출	내수		순수출
소비부문 (최종소비지출)	투자부문 (총자본형성)	수출부문 (재화와서비스 순이출)	소비부문 (최종소비지출)	투자부문 (총자본형성)	수출부문 (재화와서비스 순이출)
1.8%p	1.8%p	0.7%p	1.4%p	0.4%p	0.1%p

주 : 지역총생산에 대한 지출중 통계상 불일치 부분을 감안하지 못한 지출항목별 수치
자료 : 통계청

[참고] 동남권 수출의존도 및 순수출 성장기여도

■ 동남권 수출의존도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동남권 수출의존도는 2011년 정점(88.9%)을 기록한 후 2016년 55.6%까지 하락하는 모습

〈 동남권 수출의존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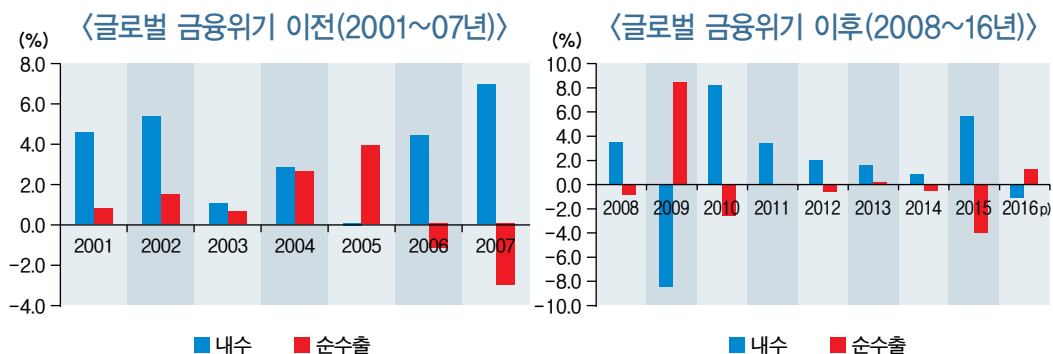
구분	동남권	부산	울산	경남
2007년	57.3	16.8	118.7	46.4
2008년	84.4	23.4	161.3	78.7
2009년	81.2	20.0	147.7	83.8
2010년	76.8	22.4	131.3	77.2
2011년	88.9	24.2	163.6	80.0
2012년	80.2	22.5	154.8	65.9
2013년	72.0	20.6	146.6	57.0
2014년	68.9	21.0	145.2	53.3
2015년	60.9	22.5	118.4	51.2
2016년	55.6	20.1	106.3	48.7

주 : 수출의존도 = 수출금액 / 명목 지역총생산, 수출금액은 연간 평균환율 적용

자료 : 통계청, 한국무역협회, 한국은행

■ 소비, 투자, 순수출의 동남권 경제성장 기여도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순수출의 성장기여도가 마이너스를 기록한 경우가 많았으며 내수 부문이 성장을 주로 견인



주 : 지역총생산에 대한 지출중 통계상 불일치 부분을 감안하지 못한 지출항목별 수치

자료 : 통계청

[참고문헌]

통계청, www.kosis.kr

한국무역협회, www.kita.net

_____, “수출 강소기업의 성장전략 및 정책과제에 관한 연구,” 2018.1

한국수출입은행, “수출의 국민경제 파급효과 개선 방향,” 2017.5

_____, “2017년 3분기 수출실적 평가 및 4분기 전망,” 2017.11

한국은행, www.bok.or.kr

현대경제연구원, “최근 수출동향과 시사점,” 2017.6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18.1

World bank, “Trade developments in 2016,” 2017.2

WTO, “World trade statistical review 2017,” 2017.6

BNK경제인사이트 발간목록

2014

05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동남권 수출의 변화와 시사점
06	부산지역 아파트 시장 동향과 전망
07	글로벌 해운시장 전망과 동남권 조선업의 과제
08	동남권지역의 고용구조 변화와 시사점
0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엔화환율 동향과 전망
10	동남권 지방은행의 그룹화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11	2015년 동남권 경제전망
12	월드클래스 300기업의 특징과 지역기업에 대한 시사점

05	한국형 양적완화와 구조조정
06	주요국 통화 환율 동향과 전망
07	브렉시트와 지역경제
08	동남권 상장기업 경영실적 분석
09	동남권지역 대출 및 예금시장 동향
10	동남권지역 소매판매 동향 및 특징
11	2017년 동남권 경제전망
12	동남권 수출 변화 및 시사점 : 최근 5년간의 변화를 중심으로

2015

01	G2경제 항방과 동남권 경제에 대한 시사점
02	최근 국제금융시장 진단과 시사점
03	동남권의 중남미 교류 현황과 과제
04	지역경제 혁신의 동력 - 사물인터넷
05	동남권 자동차산업 현황과 과제
06	동남권지역 서비스업 현황
07	최근 기업금융 현황
08	중국경제 전망과 동남권 경제에 대한 시사점
09	동남권지역 주택시장 현황
10	동남권 창업생태계와 발전과제
11	2016년 동남권 경제전망
12	경쟁력 우위 조선해양기자재업체의 특징

2017

01	동남권 아파트 가격 동향 및 전망
02	4차 산업혁명과 동남권 일자리
03	동남권 기업의 인도차이나반도 진출현황 및 시사점
04	글로벌 환율동향과 동남권 경제
05	원자재시장 동향 및 시사점
06	조선산업 동향 및 향후 과제
07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동남권의 미래
08	동남권 주력산업 수출동향과 전망
09	동남권 산업생태계와 향후 과제
10	인구구조 변화와 동남권의 과제
11	2018년 동남권 경제전망

2016

01	중국경제에 대한 최근의 시각
02	회사채 시장 동향 분석
03	10대 신흥국(중국제외)에 대한 동남권지역 수출 분석
04	동남권지역 건설업 분석

2018

01	동남권 수출과 지역경제

2018 하피뉴이어

희망찬 한해 되세요!

밝아오는 2018년 새해에는
바라는 일들 모두
성취하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비우 외우

미스티 비, 엔젤 케이, 비우 외우는
고객과 직원 모두에게 행복을 전하는
BNK금융그룹 캐릭터 BNK캐릭터입니다.



▲미스티 비



▲엔젤 케이

BNK 금융그룹

BNK 부산은행 BNK 경남은행 BNK 캐피탈 BNK 투자증권
BNK 저축은행 BNK 자산운용 BNK 신용정보 BNK 시스템

*모스마케팅연구소 170725-027

BNK BNK금융지주

제2018-01호

신고번호 부산남, 라00006

신고일자 2016년 10월 14일

발행인 김지완

편집인 김성주

발행처 BNK금융지주 (www.bnkfg.com)

주소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30 (문현동)

연락처 Tel : 051-620-3180 Fax : 051-620-3199

인쇄 애드벤처

2018년 1월 31일 발행

BNK금융지주 홈페이지에서 BNK경제인사이트 뿐만 아니라
경제 및 금융분야의 다양한 연구보고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